

‘1박2일’ 부터 ‘씨름의희열’ 까지... KBS 예능 변화 통할까

13년간 자리 지켜온 ‘1박2일’ 시즌4로 9개월만에 컴백

정해인 첫 단독 예능 · 기술 씨름 선보여...시청자 반응 관심

KBS 2TV 예능 프로그램이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다. 13년간 자리를 지켜온 ‘1박2일’의 귀환이 중심이 됐고, ‘씨름의희열’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다. 과연 KBS의 새로운 변화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KBS 2TV 신규 프로그램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훈희 제작2본부장, 이재우 예능센터장,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조현아 CP, ‘씨름의희열’ 최재형CP,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기훈석 PD가 참석했다.

19일 오후 11시10분 처음 방송되는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이하 ‘슬어쟁’)은 ‘어른이’로 불리는 2030 사회 초년생들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 26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되는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이하 ‘걸어보고서’)는 KBS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를 예능으로 재탄생시킨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여행 리얼리티가 아닌 ‘걸어서 여행하

고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일명 ‘견큐멘터리’라는 콘셉트다.

30일 오후 10시45분 처음 방송되는 ‘태백에서 금강까지-씨름의희열’ (이하 ‘씨름의희열’)은 화려한 기술과 스피드를 앞세운 태백, 금강급 씨름 선수들의 경량급 천하장사 대회도전기로, 씨름의 부활을 꿈꾸며 선발된 최정에 씨름 선수 16인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술 씨름의 정수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시즌4로 새롭게 돌아오는 ‘1박2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로 유쾌한 여섯 남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달 8일 오후 6시30분부터 방송된다.

이훈희 제작2본부장은 KBS 2TV의 예능들이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지는 것에 대해 “KBS가 그 사이에 ‘예능이 정체 되어 있다’ ‘활력이 떨어진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변화가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KBS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KBS 예능이 활력이 생겼다’ 라는 것에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

지난 3월 시즌3의 제작 중단 이후 약 9개월 만에 돌아온 ‘1박2일

시즌4’ (이하 ‘1박2일’)의 이항선 CP는 ‘1박2일’과 관련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에 답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 것의 우려에 대해 “‘1박2일’의 원형을 아직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출연자와 연출이 대폭 바뀌기 때문에 포맷까지 바뀌면 제3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았다”라며 “우선 포맷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만약 후가 되어 시청자 분들이 적응이 되면 포맷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

장성규의 지상과 첫 메인 MC 예능인 ‘슬어쟁’의 기훈석 PD는 프로그램에 대해 “본격 경제예능이다. 전세 월세 적금 예금부터 시작해 결혼 축의금, 회식까지 젊은 친구들이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생활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이렇게 설명하니 딱딱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메인 MC인 장성규씨가 근엄한 선을 넘는다. 그런 것이 재밌게 그려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배우 정해인의 첫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으로 화제가 된 ‘걸어보고서’의 조현아CP는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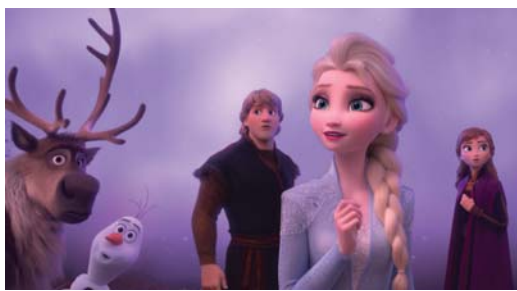
KBS 2TV 신규 프로그램 설명회. 왼쪽부터 기훈석PD, 조현아CP, 이훈희 제작2본부장, 이재우 예능센터장, 최재형CP, 이항선CP

로그래에 대해 “만들 때부터 섰던 프로그램이다. 어제 2회 시사를 봤는데 시청자 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에 더욱 설렌다”라며 “정해인씨가 처음 KBS에서 예능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와 접목을 시켜, 정해인씨를 PD로 삼고 직접 걸어보고 여행을 하는 ‘견큐멘터리’가 될 예정이다. 직접 걸으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러다보니 시청자들이 같이 여행을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다”

라고 설명했다. 최정에 씨름선수 16인과 김성주 이만기 등 최고의 중계진을 공개하며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씨름의희열’의 최재형CP는 프로그램에 대해 “씨름은 KBS만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추석 때 씨름이 화제가 되던 때부터 기획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화제가 된 것을 보고 확실한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이훈희 제작본부장

은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KBS는 가족들이 다같이 볼 수 있는 온국민이 전세대에 걸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하지만 어렵다 보니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만들어졌지만 보편적인 정서, 따뜻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그런 지향점을 놓지 않을 생각”이라고 목표를 이야기했다.

‘겨울왕국2’ 첫 공개, 전편 잇는 감동...관객은 제2의 ‘렛잇고’



‘겨울왕국2’가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다.

18일 오전 언론배급시사회를 통해 국내에 처음 공개된 ‘겨울왕국2’ (감독 크리스 벅, 제니퍼 리)는 ‘겨울왕국’의 후속

편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 시킬만한 작품이었다. 주인공 두 자매 안나(크리스틴 벨 분)와 엘사(이디나 멘젤 분)가 아렌델 왕국에 닥친 위기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확장된 세계관 속에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시사회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제작진의 ‘스포일러 자제’ 당부와 함께 시작했다. ‘형만하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는 만큼, 이 영화는 유명 전작의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는

작품이다. ‘겨울왕국’ (2014)은 국내에서만 약 1029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크게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의 역대 흥행 애니메이션 순위 1위를 꿰찼고, 2019년까지 전세계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공개된 영화는 전작보다 더 깊은 스토리가 돋보였다. 1편에서 보여줬던 자매의 화해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그려내며 한층 스케일 큰 감동을 준다. 역시 1편과 같이 끈끈한 자매애와 희생으로

서로를 지키고 보살피며 성장하는 안나와 엘사의 모습은 화려한 뮤지컬 넘버들과 어울려 103분을 환상적으로 이끌었다. 관객은 관객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는 OST의 등장이다. 세계적 히트곡이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았던 전작의 ‘렛잇고’ (Let it go)를 이을만한 곡들이 있어야 흥행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수 태연이 커버한 ‘인투 더 언노운’ (Into the Unknown)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겨울왕국2’는 21일 국내 개봉한다.

이수민, 중앙대 연기전공 20학번 된다

“수시 최종 합격”

배우 이수민(18)이 중앙대학교 2020학번이 됐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18일 뉴스1에 “이수민이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연기) 전공 수시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2001년생인 이수민은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중앙대 수시 전형에 지원해 대입수험능력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수민은 2009년 아역 배



우로 연예계에 입문했고, EBS ‘생방송 독!독! 보니하니’를 진행하며 인기를 누렸다. 올초 개봉한 영화 ‘내안의 그놈’에도 출연했다.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쑤미랜드:더블 탭
2관	엔젤 해즈 폴른
3관	신의 한 수:귀수편
4관	블랙머니
5관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더빙)마법안개의 비밀:황금 보물선을 찾아라
6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7관	블랙머니
8관	블랙머니, 82년생 김지영
9관	신의 한 수:귀수편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신의 한 수-귀수편, 아담스 패밀리
2관	신의 한 수-귀수편, 82년생 김지영, 어쩌다 룸메이트
3관	신의 한 수-귀수편, 쑤미랜드-더블 탭, 어쩌다 룸메이트
4관	블랙머니
5관	터미네이터:다크페이트, 엔젤 해즈 폴른
6관	블랙머니, 아담스 패밀리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